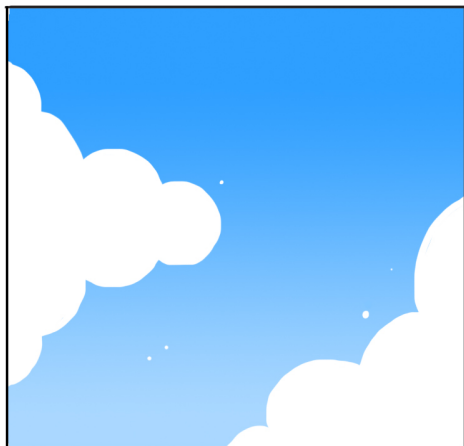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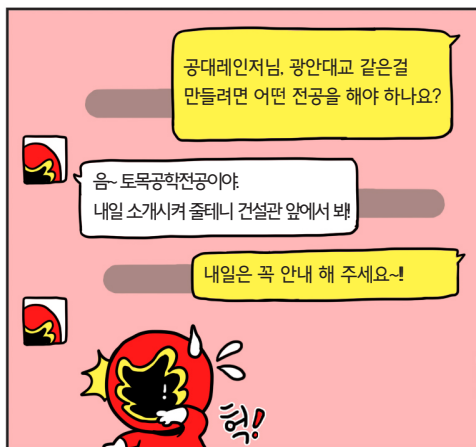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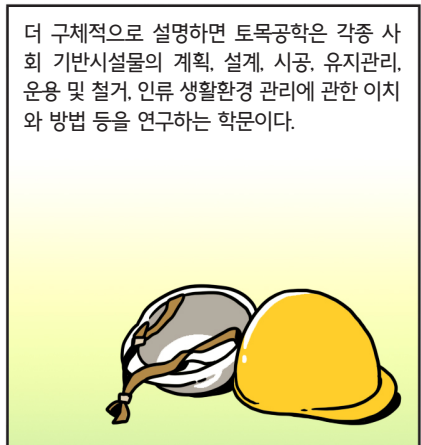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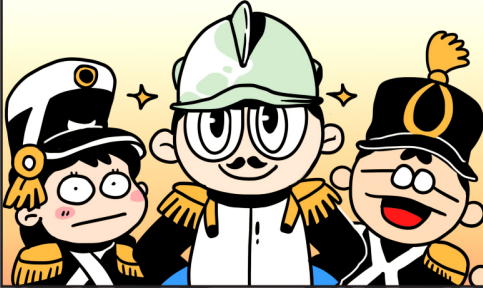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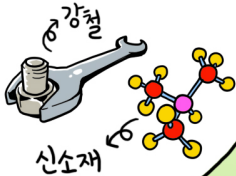
근대의 토목공학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기술자의 조직으로 공병대가 창설되었는데 최초의 토목기술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760년경 존 스미튼에 의해 Military Engineering (군사공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1771년에 토목기술자협회가 결성되었고, 이때부터 토목기술자를 Civil Engineer라 부르고, 토목기술을 Civil Engineering(시민공학)이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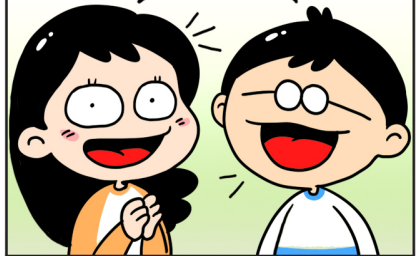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재료가 주로 흙과 돌, 나무 등이어서 토목으로 쓴 것으로 보여. 하지만 현대의 토목재료는 강철,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해.



다양한 재료로 뭐든 만들어 내는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같네요!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토목산업은 더욱 대단하지.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자체 개발한 기술과 장비만으로 세운 한국형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 와...



'고속도로는 직선으로 곧게 뻗는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국내 최장터널인 인제터널.



세계 최초 기록과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거가대교의 침매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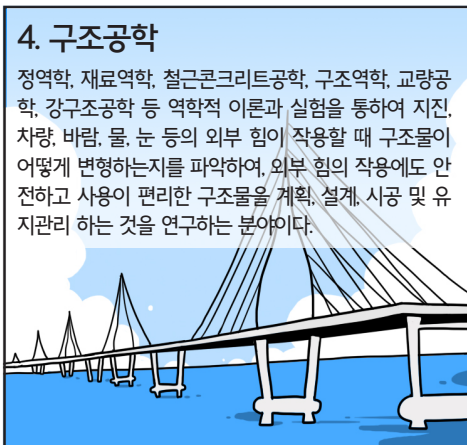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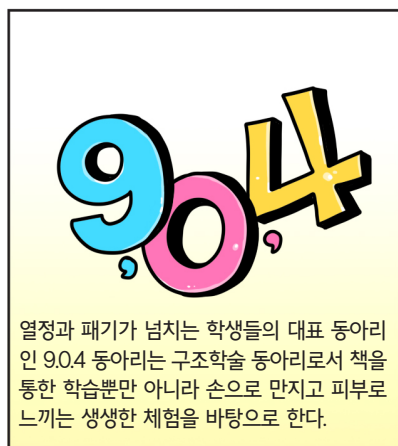
싱가포르 주룽(Jurong)섬 해저 석유비축기지 등은 우리 기술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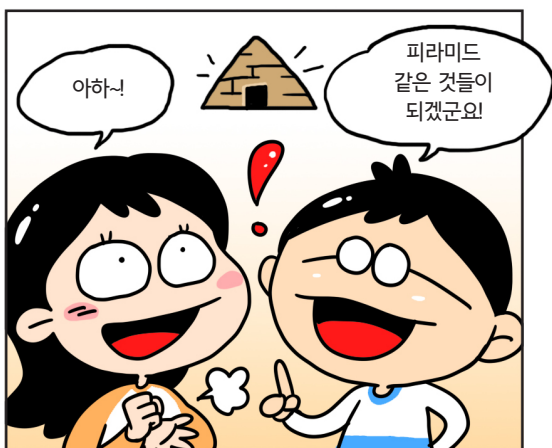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토목공학전공은 1953년 토건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후에 교수진의 질적, 양적인 총원과 실험 장비의 현대화, 학업시설의 계속적인 투자, 지역의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연계 활동 등으로 높은 수준의 토목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용어가 IT분야를 중심으로 가전이나 주택건축분야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등으로 주로 IT분야에 적용되는 컴퓨터 환경으로 인식이 되어왔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개념이 가전, 주택, 의료, 건설 분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분야의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U-Construction기술은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가 대형 브랜드 아파트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무선네트워크 센서를 이용한 도로관리기술, ZigBee/CDMA를 통한 콘크리트 양생관리와 현장관리기술, U-Construction System등이 실용화 되거나 실용화를 목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미래에는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진동, 온도, 습도, 응력 등을 스마트 센서를 활용하여 항시 계측제어하게 되며 이는 재난방지 및 구조물의 수명까지 파악하여 보수 및 해체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